

목포해수청, 항만시설 사용실태 일제 점검 실시

- 목포항 및 흑산도항 항만시설 사용 실태 집중 점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환)은 항만시설의 불법·무단 사용을 근절하고 항만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항만시설 사용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오는 7월 19일까지 실시한다.

국가관리무역항(목포항)과 국가관리연안항(흑산도항) 내 전용사용 허가 항만시설(312개소)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항만시설 무단 사용 여부, 사용허가 조건 준수 여부, 허가 시설 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시정·변상금 부과·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선박 입·출항 관련 사용신고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선박료와 화물료 부과·징수 관리의 적정성과 사용료 감면율 적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신고 누락자와 체납자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영길 항만물류과장은 “항만시설 사용실태 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무단 사용 관행을 근절하고 항만 질서를 확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항만물류과	책임자	과 장	이영길	(061-280-1660)
		담 당	주무관	문윤희	(061-280-1667)
		담당자	주무관	신호철	(061-280-1707)